

정보화사회를 살아가는 지혜



尹 恩 基

〈경영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약 력 □

- 고려대 심리학과 졸업
- 연세대 경영대학원 (국제경영 전공) 졸업
- 서울대 경영대학원 강사
- 유나이티드 컨설팅 그룹 수석 컨설턴트
- 산업정보학교 대표
- 現 경영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저 서 □

- 정보학 특강
- 정보력과 휴먼웨어
- 종합상사의 정보전략

情報化는 民主化촉진의 하부구조

6공화국 출범 초기에 어떤 정당의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할 때의 일이다. “지금 민주화가 급진전되고 있는데 가장 큰 공로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더니 대답은 그야말로 가지가지였다.

「운동권 학생」「재야」「종교단체」「정치지도자」「민중」「언론」등등……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외에도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까 전부 의외라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다시 나타나서 정권을 잡고 언론검열을 실시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신문이나 잡지를 가위로 자르고 먹칠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의식수준의 향상 등도 이유가 되겠지만 사회구조가 이를 가능치 않게 하기 때문이다.

국제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복사기, 녹음기, 비디오테이프 등의 발달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아무리 엄격한 통제를 하여도 그물로 물을 퍼올리는 격이 될수 밖에 없다.

만약 검열이 실시된다면 검열

부분은 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 확실하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투쟁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구조가 개방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때 민주주의가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가속화되고 있는 민주화의 성과는 정치인들이나 정치나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끌어 온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 공장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첨단과학 연구실에서 땀흘린 사람들이 함께 이룩한 성과인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정보화사회란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하부구조(infrastruture)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민주화의 주역으로서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정보화사회에 살면서도 정보화사회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情報化社會의 다양한 모습

“정보화사회란 무엇인가?” 직업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도 정말 다양하게 나온다.

「정보화사회란 골치아픈 계산은 컴퓨터가 하고 힘든 일은 로보트가 하며, 인간은 먹고 마시고 노는 고도복지사회」라는 낙관적 주

장으로 부터 「각 부문별 욕구가 분출되어 갈등이 심화되고 첨단 기계에 의하여 비인간화가 심화되는 말세」라는 비관적 주장도 있다.

확실히 정보화사회는 「千의 얼굴」을 지니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처럼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정보화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의 특징적이고 핵심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정보화사회는 정보가 모든 자산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정보집약사회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자원 중에서 농경사회는 노동, 산업사회는 기술과 자본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면 정보화사회는 정보라는 자산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와 다른 자원이 결합되면 부가가치가 향상된다. 기술과 정보가 만나면 「하이테크」가 되고, 돈과 정보가 만나면 「財테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정보를 중시하게 되고 「정보재산」(wealth of Information)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회가 정보화사회이다.

수직적 폐쇄사회에서 수평적 개방사회로

둘째 정보화사회의 특징은 「수평적 개방사회」라는 점이다.

이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

하여 정보의 이동이 신속하고 멀리까지 가능해짐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정보는 처리되고 축적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오늘날 발달된 정보통신망이 이를 해결해 주고 있다.

「수평적 개방사회」는 과거의 「수직적 폐쇄사회」와는 달리 일방적인 명령이나 지시, 그리고 권위주의에 복종하는 대신 대화와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동기 부여가 보다 중요한 행동양식이 되고 있다.

셋째 정보화사회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사회이다.

「갈브레이드」 교수는 현대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첨단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된 새로운 기회와 위협, 그리고 다양한 욕구의 분출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력, 경력, 직책이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정보학자들은 “정보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보가 있으면 사전에 기회를 포착할 준비를 하거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명언이다.

미래지향적 思考로 변화에 대응

넷째 정보화사회는 「스피디」한 사회이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뿐만이 아니라 산업구조나 정치스타일,

그리고 가정생활방식 까지도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다. 한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가전회사의 광고문구는 어느 사이엔가 사라져 버렸는데, 요즘 10년씩 가는 가전제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던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응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결국 변화에 대응하는 최선책은 미래 지향적 사고를 갖는 일이다.

엘빈 토플러가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감탄한 것은 서점에 꽂혀 있는 책들이 「○○산업의 미래」, 「××의 전망」 「2000년대 시나리오」 등 미래지향적인 제목의 책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거기에 비하여 영국서점에 꽂혀 있는 책 제목은 과거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성공하고 있는 비결은 바로 미래지향적 사고 때문이라는 토플러의 지적은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이상 정보화사회의 특징에 대하여 몇가지 살펴보았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千의 얼굴」중에서 극히 일부를 살펴본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정보화사회는 지금까지의 산업사회와는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행동양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자신의 생활주변을 중심으로 정보화사회의 특성을 잘 살펴보고 효과적인 행동양식을 개발해 가는 것이 정보화사회를 살아가는 지혜가 될 것이다. ■